

문화복지센터 우기때 누수 문제 지적

고성군의회, 5개 읍면 새해 사업 대상지 현지시찰·예산안 심의...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체 준비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12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2012년도 주요사업 대상지 현지시찰과 일부 부서 새해 예산안 심의 활동을 벌였다.

1일 진행된 5개 읍면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김진 의원(예결위원장)은 “읍면의 마을정주기반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상연 의원은 “고성군문화복

지센터는 우기 때면 건물이 누수가 된다”며 “종합적인 청사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함형완 의원은 “5개읍면 목재 파쇄기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사 용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읍면 공통적으로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읍면 소유의 장비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시설 신축방안을 모색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봉선 의원은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1억원 이상 감액되

었는데,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닿는 사업이므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에서 완공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선기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과 어렵고 힘든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만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확대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함명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2년도에 위원들이 교체되는데, 교체되는 위원에 대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 2012년 새해 사업으로 추진되는 현내면 대진할어센터 앞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산을 편성해 공동체적인 역할이 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이뤘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

지역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함형완 고성군의회 관련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고엽제 별도수당 지원...수당·사망위로금 인상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함형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이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역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고성군에서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정해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특히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게 지급하지 않던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참전 명예수당을 종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사망위로금도 종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4만원

지급과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을 신설했다. 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는 지역의 주요 행사에 희생 및 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를 하도록 했으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희생자와 공헌자의 공적을 게재하도록 했다. 복지지원으로는 고성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감면하고, 생존 애국지사의 재



가복지 우선 지원,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함형완 의원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사기가 다소 진작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민주당 속초-고성-양양지역위 핵심당원교육

민주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동기)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속초문화회관에서 핵심당원 교육을 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강래국회의원, 홍준일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신창현 전 의왕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기 지역위원장은 “설악권은 도지사와 양양군수 보궐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며 “이에 자만하지 말고, 조만간 성사될 통합신당을 중심으로 더 크게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송훈석 국회의원은 “강원도민을 우롱



하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며 “강원도의 중심인 속초-고성-양양지역 민주당원들이 앞장 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유암문화재단 2011년도 장학증서 전달식

속초-고성-양양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30년간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재단법인 유암문화재단(이사장 정문헌)은 지난 3일 오후 2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2011년도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증서 전달식에서는 속초-고성-양양지역 고등학생 51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1천5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유암문화재단은 지난 1982년 35명의 학생에게 308만6천26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1,509명의 학생에게 4억9천193만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유암문화재단은 지난 1982년 유암 정재철 전 국회의원이 장학사업과 학술 연구 및 개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2003년부터 아들인 정문헌 전 의원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최광호 기자